

## 한전,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8조 원 투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총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수용하고 전력피크를 감소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 및 스마트 홈, 공장과 같은 전력소비분야의 지능화 추진을 통해 전력설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송배전설비의 지능화, 스마트미터의 교체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40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며, 2020년까지 2조 3000억 원, 2030년 3조 7000억 원 등 총 8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개발된 요소 기반기술을 토대로 스마트 그리드 확산에 필요한 추가 기기의 개발과 확대 실증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기술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 한전, 국내 최초 해상 기상타워 준공



국내 최초의 해상 기상 타워가 준공됐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국내 최초로 부안~영광 해역에 해상 기상타워를 준공했다.

‘해모수 1호(HEMOSU-1)’로 명명된 이 기상타워는 높이 약 115m의 구조물(해저 15m, 해상 100m)로 부안~영광 해역에 구축 예정인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기상과 해양 데이터를 취득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의 대상 부지 인근 위성관측 데이터에 의존해왔던 간접적인 풍황 자원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풍력기기 선정으로 단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상타워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연구소에 송신돼 기상조건의 시간단위 변화에서 연간 변화까지 추적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태풍의 풍황과 최대풍속까지 측정이 가능해 국내 기상조건에 적합한 터빈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부발전 “2020년 세계1위 화력 발전회사 도약”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이 오는 2020년 세계1위의 화력발전회사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1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남인석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eyond the border No.1 Thermal Power Company' 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비전선포 배경과 관련 시장형 공기업 지정(2011년 1월 24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한전의 Global Top5 Energy& Engineering Company 비전달성,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의 증대 등 전력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부발전은 특히 이번 비전선포는 'Global Clean power Company' 라는 기존의 추상적인 비전에서 벗어나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비전임을 강조했다.

## 남부발전, '솔라트리' 개발



제한된 면적에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개념의 태양광발전 기술이 나왔다.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나뭇잎 대신 유연(flexible) 태양전지를 사용한 태양광나무(일명 '솔라트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 개발했다.

유연 태양전지는 광활성 소재를 유리기판 위에 입혀 제작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금속호일, 플라스틱 등 구부러지는 재질 위에 광활성 소재를 씌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다.

나무가 햇빛으로 광합성 하는 원리에서 착안,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나무 모양의 발전설비인 솔라트리는 독립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로등, CCTV, 통신중계기 등과 결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남부발전은 앞으로 KIST와 협력해 내년께 솔라트리 대형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다.

## 동서발전, 국내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본격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발전소가 강원도 동해시에 들어선다. 연료는 목재찌꺼기를 가공해 만든 우드칩(Wood Chip)이다.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은 지난달 9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과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발전소는 전력생산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바이오매스발전설비이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단일 규모론 국내 최대인 3만kW급이라는 게 특징이다. 하루 5만 7000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설비로는 처음으로 원자력, 유연탄 등과 함께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소 가동률 목표가 90% 이상으로 설정됐다. 발전소는 2013년 3월 동해화력 구내에서 준공될 예정이다.

## 한전KDN, 미국 IT 시장 진출 청신호



한전KDN(사장 전도봉)은 지난달 7일 미국 카네기멜론대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EI) 측으로부터 CMMI Level III 인증을 개발과 서비스 분야에서 동시에 획득했다.

CMMI Level III 인증은 미국 국방성이 발주하는 IT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다.

이번에 CMMI Level III 인증 획득을 계기로 IT 개발과 서비스 분야 등 미국 거대 IT 시장에서 사업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CMMI 레벨은 총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3단계 이상의 레벨을 획득하면 국제 수준의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돼 국방성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전KDN은 지난해 5월 CMMI TF를 구성해 각종 인증 요건을 분석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9월 예비심사와 12월 본심사 등을 거쳐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 두산중, 사우디 해수담수화 설비 수주



두산중공업(대표 박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SWCC)과 1억 2,400만 달러 규모의 다단효용(MED : Multi-Effect Distillation) 방식 해수담수화 설비 증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설비(Yanbu Phase 2)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안부 지역에 건설되며 1기당 용량이 15MIGD (6만8,190톤)로 다단효용방식의 해수담수화 설비 중 세계 최대다.

이는 20여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종전 1기당 용량이 8.5MIGD로 세계 최대였던 UAE의 후자이라2 해수담수화 설비 보다 2배가량 더 큰 규모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 기자재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식으로 일괄 수행해 2012년 8월 완공할 예정이다.

## 일진전기, 글로벌 거점 확대에 '방점' 올해 초고압 설비 추가 증설 완료



일진전기(대표 최진용·허정석)는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1968년 창립 이래 42년 만이다.

일진전기의 매출 1조 원 시대를 연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전선사업본부다. 설립 초기에는 철선 위에 동을 피복한 '동복강선'이 주력제품이었으나 이제는 LS전선, 대한전선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초고압 케이블 분야 '빅 3'로 꼽힌다.

전선사업본부는 일진전기의 든든한 수익창출원으로써 초고압 케이블 시장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무서운 신흥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일진전기는 올해 초고압케이블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침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생산거점 확보와 해외지사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